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4월 12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 당 자	• 대기평가과장 박진영 ☎440-5581 • 담당자 이선우 ☎440-55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이제는 오존을 대비할 때
- 인천시, 오존 고농도 기간(4.15 ~ 10.15) 예·경보제 집중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하절기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을 대비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예보제와 오존경보제 상황실 집중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하절기 기온상승과 강한 햇빛에 의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로, 호흡기 자극 및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기침,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존 예·경보제는 이러한 오존의 위험성을 알리고 고농도 시 오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제도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오존 발생 조건을 분석하고 오존 오염도를 권역별로 4가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해 예보 결과를 제공한다.

권역별 오존 예보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s://air.incheon.go.kr>)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의 오존 예보 알람서비스 신청을 통해 매일 오전 최대 2개 지역(군, 구)의 예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오존 주의보 발령에 따른 경보제 발령 문자는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소통참여 메뉴의 문자알람서비스에서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온과 일사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오존농도가 높아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보 발령 시 실외 활동 자제를 당부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 오존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오존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한다.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한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는 주의를 기울인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또는 제한한다.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줄인다.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한다.

출처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